태고종, 대규모 영산수륙방생대재 연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 신년 기자회견 개최

오는 10월 17일 한강 둔치서
수륙대재 더불어 방생도 함께
"전통의식 영산재 홍보에 역점"
고립 은둔 청년 돌봄사업 추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은 1월 20일 서울 한국불교문화전승관 3층 법륜사 대웅보전에서 '2026년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신년회견문을 발표하는 모습.

지난해 1만여 태고종도가 광화문 광장에서 만들어낸 법열(法悅)을 올해에는 한강 둔치에서 이어간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월 20일 서울 한국불교문화전승관 3층 법륜사 대웅보전에서 '2026년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태고종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6대 핵심 주요종책을 발표했다.

먼저, 매년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리는 태고문화축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시연과 다양한 전통·현대문화공연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게 태고종의 계획이다.

상진 스님은 "올해에는 태고문화축제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예산의 절반 정도를 태고종 전국 지역 사찰의 문화행사로 쓸 수 있게 하겠다. 태고문화축제를 대한민국의 축제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광화문 광장에서 1만 태고종도가 보여준 태고종의 저력과 역량이 올해에는 한강에서 재현된다. 태고종은 오는 10월 17일 한강 둔치에서 '영산수륙방생대재'를 봉행하고 국태민안과 사회통합을 기원한다.

상진 스님은 "지난해 종도와 국민이 많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신 덕분에 국제수계법회는 원만히 회향할 수 있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한강 둔치에서 영산수륙방생대재를 봉행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의 안녕을 기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반목과 퇴보가 아닌 통합과 진보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자신했다.

육조 혜능 대사, 석옥 청공 선사, 태고 보우 국사로 계승된 선맥(禪脈)을 재조명하는 세미나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열리는 제9회 한·중 불교교류 세미나는 중국불교협회와 공동주최로 열리며 실무협의를 거쳐 일정이 결정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사업도 대폭 강화한다. 태고종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협력해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복지사업들을 전개하는 한편, 대한민국 해병대전우회와는 한국전쟁과 월남전 등으로 산화한 전몰군경의 넋을 기리는 불교 전통의 위령재를 봉행할 계획이다.

상진 스님은 "미혼모와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만큼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전몰군경 위령재를 통해서는 그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법등을 환히 밝혀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고립·은둔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 삶의 활력을 찾아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마음 건강 지원 상설 프로그램 '온(ON)'을 추진한다. 명상과 마음챙김, 심리상담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살피는 '온'을 민관협력형 청년 정신건강 모델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게 태고종의 목표다.

포교 도서 〈사찰이 답하는 108번뇌〉 제작도 이뤄진다. 책은 태고종 소속 사찰 스님 108명이 일반인들이 겪는 다양한 갈등, 번뇌의 상황에 대한 108가지 질의를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향후 유튜브 쇼츠, 오디오북, 사찰 낭독회 등으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취임 3년차를 맞은 상진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지막까지 종단 발전에 힘쓰겠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스님은 "저는 총무원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잊지 않고 종단의 발전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 백척간두진일보의 정신으로 정진하겠다"며 "나아가 태고종은 한국불교의 뿌리이자 기둥으로 나라와 국민을 부처님처럼 섬기면서 차별 없는 세상을 구현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해사 주지후보 선거, 투표용지 '공개' 여부 두고 논란

1표 차로 성로 스님 선출
덕관 스님 "비밀투표 위반"
중선위, 1월 28일 소청 심사


산중총회에서 성로 스님이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고 있는 모습.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후보 선거가 투표용지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10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본 스님)는 1월 16일 은해사 육화원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기호 1번 성로 스님을 주지후보로 선출했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선거인단 114명 중 10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로 스님이 55표, 기호 2번 덕관 스님이 54표를 얻어 단 1표 차로 당선이 결정됐다. 문제는 당선증 수여 후 불거졌다. 투표 당시 성로 스님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접지 않은 채 투표함에 넣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상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덕관 스님은 1월 19일 본사 주지후보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당선인 재결정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덕관 스님은 "산중총회 투표 과정에서 후보자인 성로 스님이 기표한 투표지를 접지 않은 채 투표함에 넣어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로 스님은 "당시 양측을 대변하는 참관인이 모두 배석했고, 중앙선관위와 교구선관위, 호법부 스님들도 전 과정을 지켜봤지만 문제제기는 없었다"며 "이의 여부를 물었을 때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혹시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즉시 제지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426차 회의를 열고 덕관 스님이 제기한 선거 소청을 오는 1월 28일 오후 2시에 심사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심사 전날인 1월 27일까지 소청인인 덕관 스님과 피소청인인 성로 스님에게 각각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으며,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법률 자문도 받기로 했다.

김내영 기자

"상월 원각 대조사 탄신 뜻 새기자"

천태종, 상월 원각 대조사
탄신 114주년 봉축법요식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의 탄신 114주년을 기리는 봉축법요식이 1월 16일 사부대중 1만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됐다.

구인사 광명전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대종사와 총무원장 덕수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등 종단 대표자 스님들과 이동욱 충북도 행정부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이충재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등이 참석해 상월 원각 대조사의 탄신을 봉축했다.

종정 도용 스님은 법어에서 "상월 원각 대조사는 정법을 중흥해 부처님 지혜의 태양을 다시 밝히고 장엄한 원력으로 불가사의한 수행의 길을 열어 보이신 분"이라며 "하나의 마음으로 세계가 조화를 이룰 때 중생을 제도하는 길이 열리는 만큼 대조사의 탄신 뜻을 새겨 국태민안과 인류의 행복을 기원하며 참된 불자로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봉축사에서 "사람이 가장 귀하게 지켜야 할 것은 양심을 바탕으로 한 사람다운 삶"이라며 "가정과 사회, 국가를 이롭게 하는 삶이 불자가 실천해야 할 길"이라고 보살행 실천을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상월 원각 대조사 탄신 114주년 봉축법요식을 계기로 한국불교계가 더욱 굳게 합심해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고, 동참한 사부대중 모두에게 제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길 축원한다"고 전했다.

상월 원각 대조사는 1911년 음력 11월 28일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 15세에 법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45년 소백산 기슭에 구인사를 창건하고, 고려 대각 국사 의천의 중생구제 정신을 계승해 한때 끊어졌던 천태종의 법맥을 다시 일으킨 중창조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진우 스님, 조국 대표에 '조화' 당부

1월 21일, 소통·연대 중요성 강조
조국 대표 "파수공행 자세로 정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예방을 받고 분열과 갈등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치"라며 소통과 연대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조국 대표는 지난해 11월 당 대표로 복귀한 이후 정식 인사를 겸해 이날 진우 스님을 찾았다. 조 대표는 "그동안 여러 도움과 지도편달을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파수공행(把手共行)'의 마음으로 손을 맞잡고,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함께 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정치가 '다름 속의 조화'라고 일깨웠다. 스님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같을 수 없다"며 "다름에서 조화를 이루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야 말로 정치인의 중요한 자세"라고 덧붙였다.

조급함을 경계하라는 가르침도 전했다. 진우 스님은 "'욕속부달(欲速不達)'이라고, 너무 빨리 가려 하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며 "조급하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세심하게 나아가면 오히려 먼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또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여럿이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내영 기자

대원아카데미 | 디지털대원아카데미 2026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

대원아카데미(출석 교육)
모집과정
불교전법사 과정 00명
명상지도사 과정 00명
심리상담사 과정 00명
2년 4학기(학기당 4과목)
과정별 주 2일 15주 출석 수업
(화 · 수 · 목 · 금) 13:00~17:00
수강료: 400,000원(학기당)
※ 과목별 등록 수강 가능(과목당 10만원)

디지털대원아카데미(온라인 교육)
모집과정
불교전법사 과정 00명
명상지도사 과정 00명
심리상담사 과정 00명
2년 4학기(학기당 4과목)
과정별 주 2일 15주 온라인 수강
(화 · 수 · 목 · 금) 13:00 업로드
수강료: 300,000원(학기당)
※ 과목별 등록 수강 가능(과목당 10만원)

○ 공통과목: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불교와 현대철학, 명상심리학, 초기불교(니까야), 불교란 무엇인가, 진화인간학, 유식과 불교의 마음, 뇌 과학과 불교,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등
○ 전공과목: 법이란 무엇인가, 한국헌법과 자유민주주의, 명상과 치유, 마음챙김 명상의 이론과 실습, 불교의 마음, 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습, 실정법의 개요,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 한국 헌법의 원리와 개정 방안, 불교와 국가, 정신건강과참선명상, 불교심리학, 마음챙김의 이론과 실습, 불교상담의 이론과 실습, 인지심리학, 정신분석학, 불교명상학, 자아초월과 불교심리치료, 상담심리학, MBSR과 MBCT, 유식과 불교의 마음 등

○ 교수진
김윤수 (전)사법연수원 교수, 법학 학사
이한구 경희대학교 석좌교수, 철학 박사
김학동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학 박사
구상진 (전)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 박사
성소은 '경계너머 아하!' 대표, 사회학 박사 수료
양희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심신통합치유학 박사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불교학 박사
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상담학과 교수, 동서양심리학 박사

○ 특전 및 혜택
성적 최우수 장학금 : 수업료 100% 지급
성적 우수 장학금 : 수업료 50% 지급
스님 및 불교계 종사자 등록 시, 수업료 50% 할인
가족동반 등록 시, 1인 수업료 50% 할인
수료자 재등록 시, 수업료 50% 할인
2개 과정 이상 동시 등록 시, 1개 과정 50% 할인
과정 등록자는 동반 1인에 한해 1과목 무료 청강 가능함.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 접수 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대원아카데미 www.daewonacademy.org
디지털대원아카데미 www.digitaldaewon.org
등록하기
접수 기간
2026년 3월 13일(금)까지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20 다보빌딩(BBS불교방송) 3층(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도보 50m)
문의: (02) 707-107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 · 디지털대원아카데미 www.daewonacademy.org